

2019학년도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모음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① A 학생 (1.69순위)

i) 교과 성취도

이수단위 136 | 평균재적인원 233

이수 교과	과목 수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국어	5	1.00	1.00	1.00	1.00
영어	6	1.00	1.00	1.00	1.00
수학	5	2.10	3.50	1.50	1.40
사회	6	1.30	1.50	1.20	1.40
과학	3	1.30	1.50	1.00	1.00
예술 · 체육	5	A	A	A	A
생활 · 교양	10	P(1.60)	P(2.00)	P(1.00)	P(1.00)

- 사회 이수과목 : 한국사, 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법과 정치, 사회·문화
- 과학 이수과목 : 과학, 물리 I, 화학 I
- 생활/교양 이수과목 : 기술·가정, 보건, 논술, 인문논술, 종교와 생활 I·II, 진로와 직업, 중국어 I, 한문 I, 스페인어 I

ii) 고교 공통정보 요약

- 광주 소재 일반고
- 1, 2학년 대상, 학술 프로젝트 모둠활동 운영
- 중점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된 계절학기 편성·운영
- 학생 주도 자율 발표 프로그램 운영

iii) 교내 수상

독서토론대회 대상(1위)	2017.08.14
백일장 금상(2위)	2017.12.20
창의력발표대회(공동수상, 3인) 금상(2위)	2018.07.05

iv) 자기소개서

1. 학업노력 및 학습경험

[학교생활기록부 발췌]

- 자유주제 발표시간에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의 국어 연구’라는 주제로 시대별 국어 연구기관의 명칭과 활동내용을 조사하고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는 한편 ‘국문연구의정안’의 내용과 일제강점기와 현대국어를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남을 나타냄.
- ‘우리말 바로 알고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함. 실제 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상호, 제품명 등을 직접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분석하고 국어대사전, 각종 참고문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완성하고 발표함.
- ‘정적분과 지니계수’라는 주제로 발표할 때 ‘수학, 인문으로 수를 읽다(이광연)’를 참고하여 소득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정적분으로 계산하여 알 수 있음을 주목하여 지오지브라를 사용하여 확인한 값과 정적분 계산값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지니계수와 로렌츠곡선을 소개하고 로렌츠곡선의 함수적 특징과 변화요인을 발표함. 2015년 통계청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소득분포를 로렌츠곡선으로 표현하고 우리나라 지니계수를 구하여 발표함.
- 수업시간 개인 발표 기회를 통해 한국인이 자주 실수하는 영어표현을 영·미권 문화와 함께 알아보며, 문화적 차이가 언어를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발표함. 교과서 8과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발표할 때 역사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의 본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각 자료를 적절히 제시함. 특히, 본문의 관계대명사를 설명할 때 모든 학생의 수준에 맞는 PPT 자료와 적절한 어휘 선택이 돋보임.
- 기후 변화에 관련된 독서를 하고 후속 탐구활동으로 ‘지구 온난화 진행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보고서와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함. 조사 과정에서 관련 독서와 IPCC보고서를 활용하여 지구 기온의 상승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였음.
- ‘광고 언어와 문화’를 주제로 한국과 외국의 특정 광고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말하기 방식, 어휘 등의 관점에서 폭넓게 조망함. 예비 가설을 세우고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의 동일 제품 광고에 나타나는 언어의 특징을 문화와 연결하여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탐구 결과를 활용하여 수출, 수입 등 목적과 대상의 특성에 맞는 광고 포스터를 직접 제작하여 발표함. 이후 공동체의식, 질서 유지를 주제로 공익광고 포스터와 문구를 만들어 학교 알림판에 게시하였음.
- ‘21세기 교육혁명, 왜 거꾸로 교실인가?’라는 주제의 교내 강연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많은 학생들이 무기력하게 보내는 교실 풍경을 떠올리며 자신이 교사가 되어 학생들이 주인이 되는 수업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밝힘.
-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각종 교내발표회와 전시회에 끊임없이 참가하였으며, 체력 문제로 병원에 다니면서까지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결국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집념을 보여주었음. 반에서 학급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학생으로 평가받지만, 조별 학습시간에 노력하지 않고 결과만을 기대하는 학생들에게는 쓴소리를 하는 단호한 모습을 가끔씩 보여주기도 함.
- 시사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에 임하는 자세를 갖춘 학생임. 최근 이슈가 되었던 ‘JSA를 통해 귀순한 병사의 신상공개 찬반여부’에 대해 토론할 때 발표자의 편향적인 사고를 지적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견 개진을 주문하여 발표자가 자신의 내용을 수정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
-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행복은 기쁨과 의미의 균형이 있다고 발표하여 학생들의 호응을 얻음. ‘나도 영어선생님’ 시간에 ‘Konglish’라는 주제로 발표함. Konglish의 의미, 예시 표현과 이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언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 시각의 비교, 외국인에게 Konglish를 이용하여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설명함.

[자기소개서 발췌]

국어와 문학에 빠졌던 제 고등학교 생활은 언어에 관한 탐구의 연속이었습니다. 국어 시간에 ‘한국어의 위상’을 수업한 후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어를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어에 조사를 도입하여 어순을 바꾸는 방안을 생각해 교내 영어창의력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후 동아리 활동 중 고대 차자표기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중간언어’ 개념을 제시하며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켰습니다. 저는 기존에 사용하던 언어가 말을 표기하기에 어렵거나, 자신들의 말을 표기할 수단이 없는 민족들이 한글을 바탕으로 언어생활을 하는 방안을 더 공부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없었던 ‘과거’에 쓰인 차자표기법이 ‘미래’에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생각한 아이디어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전에 없던 새것은 없다. 훌륭한 선례를 본받되 현실에 맞게 고쳐라.’라는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미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단서가 과거의 문화, 언어, 문학 등에 담겨있기도 하기에, 배우는 자세로 과거를 대하고, 과거에서 배운 점을 현실에 맞게 변용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실생활에서 언어 사용뿐만 아니라 음악과 영상매체 등 다른 분야에서의 한글 파괴가 우리 언어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친구들과 프로젝트 그룹을 조직하고 활동하며, 학생들이 문법에 오류가 있는 대중가요 가사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생활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도출했습니다. 노랫말에서 일어난 한글 파괴를 운문의 ‘시적허용’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견해를 접하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사가 학생들의 언어생활에 실제로 영향을 줄을 확인한 후, 대중가요 가사를 접할 때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생활 대화, 제품명 등에서 한글 파괴 실태를 교육하는 지금에서 더 나아가, 앞으로 국어교육은 ‘매체에서의 언어사용’도 중요하게 다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 의미있는 활동

시를 공부할 때, 한 가지 해석만을 정답인 것처럼 가르치는 학교공부와 참고서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공부 모둠을 만들어 처음 접하는 시를 사전 지식과 해석 없이 읽고, 각자가 느낀 그대로 시를 해석하고 감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다양한 해석들을 나누었고, ‘열린 해석’은 저에게 능동적인 감상 태도를 길러주었습니다. 저는 텍스트의 의미는 저자의 의도보다 독자의 해석에 의해 창조되고, 독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효용과 감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문학에는 답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배웠습니다. 문학이라는 무한한 캔버스를 한 페이지의 객관식 시험으로 평가하는 교육에 더욱 의문을 가지며, 비판적 감상 태도를 키우고 자유로운 해석을 이끄는 문학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생활에서 언어의 작용을 탐구하고 싶어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광고언어와 문화’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동일한 제품의 광고지만, 나라마다 광고 문구와 대사에서 차이가 드러나 다른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 광고의 우회적 말하기, 미국 광고의 직설적 말하기 등 한미일 3국의 광고 언어 특징을 조사했고, 문화 특징이 광고 언어 사용에 반영되어 있음을 도출했습니다. 각 문화의 특징을 반영한 광고 문구를 만들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반영한 문구를 선호했습니다. 저는 문화에 맞는 광고언어 선택이 광고의 효과에 영향을 줄을 확인하면서,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기에 사람의 심리와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아가 문학에서도 문화적 차이가 단어선택에 미묘한 차이를 주어서, 번역 문학의 경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학이 세계에 진출할 때 작품을 잘 담아내려면 각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맞는 번역이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했고, 이에 관련해서 국어를 더 깊게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화영어 수업에서 법정의 잠언집을 영어로 번역한 ‘May all beings be happy’라는 책을 골라 꾸준히 읽었습니다. 여러 주제의 짧은 글들을 엮은 책이라 중심 주제를 정하기 힘들었지만, 저는 행복의 비결을 주제로 ‘지혜와 무욕’에 대해 발표를 구상했습니다. 한글판과 영문판의 글을 비교하면서, 한글로는 길지 않은 문장이 번역본에서는 두 줄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한국문학이 고도의

함축성을 가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원본에서 드러나는 어감을 번역에서는 그대로 다룰 수 없음을 느끼며, 일대일 번역도 중요하지만 문장과 문맥에 맞는 번역도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법정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언급한 ‘지혜와 무욕’이 우리 고전시가에서 선비들이 추구했던 ‘배움과 안분지족’과 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문화에서 중요한 가치로 전승된다고 생각했고, 자유롭게 배울 수 있음에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3. 학교생활 사례

새 학년이 되어 공부를 막 시작하려는데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는 몇몇 친구들이 있어서 담임 선생님께 건의를 드려 학급 내에서 ‘오늘의 포인트’를 운영했습니다. 하루 동안 배운 내용들 중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칠판 한 쪽에 매일 적어두고, 청소 시간을 쪼개 쓰며 질문과 답변을 하며 함께 공부했습니다. 친구들의 질문을 통해 공부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고, 학습의 방향을 잡지 못한 친구들에게 어느 정도의 이정표를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생각보다 잘 활용해 주는 친구들을 보며,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은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며 서로의 노력이 서로의 긍정적인 발전과 또 다른 노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4. 독서활동

소년이 온다(한강 저)

자율동아리 활동에서 역사와 함께하는 문학을 주제로 활동하며 읽게 된 책입니다. 각 장마다 서술자를 달리하고, 특히 ‘너’를 지칭하는 2인칭 서술은 마치 5월 광주에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사실적인 묘사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받았습니다. 저항했던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폭력에 맞서면서도, 양심을 바탕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책 속 질문은 저에게 명령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규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존엄성이고, 이것을 지켜나간 사람들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문학이 아픈 역사를 일깨우는 동시에 역사에 대한 반성을 이끄는 가장 좋은 교과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학 속 아픔에 공감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 또 다른 ‘광주’를 경계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평균의 종말(토드 로즈 저/정미나 역)

이 통계의 함정을 드러낸 ‘심슨의 역설’을 조사하고, 비슷한 주제의 수학책을 읽었던 저에게 평균을 ‘종말’ 시킨다는 책의 제목은 대단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여러 사례는 개개인과 관련된 결정에서 집단의 평균은 무의미함을 드러냈습니다. 평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평균적 인간개념’의 영향을 폭넓게 설명하고 있어서, 개개인성을 무시한 테일러주의가 현대 교육과 업무 체계 등에 악영향을 끼쳤음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개인성의 3원칙 중 ‘경로의 원칙’을 통해 교육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다차원적 지능을 고려하여, 같은 목표이지만 서로 다른 방식과 속력으로, ‘따로, 그러나 같이’ 나아가는 교육을 통해 평균에 맞춘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문학비평 교육에서도 비평이라는 목적은 유지하면서, 특정 관점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마다 다르게 반응하고 해석하는 것을 존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오신화(김시습 저/ 이지하 역)

문학 수업에서 ‘이생규장전’을 배우던 중, 금오신화의 다른 작품들에도 같은 작가의식이 드러나는지 궁금해 다섯 작품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모두 주인공들이 산속으로 잠적하거나 죽음으로써 이야기가 끝났고, 이는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한 김시습의 저항의식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남염부주지’에서는 작가의 대변인인 박생이 저승 사자의 대화에서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자유롭게 드러내며 세조를 은근히 풍자했습니다. 저는 현대문학이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문학은 사회를 고발하는 수단이자 작가의식을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수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전문학 속 사회문제와 민중의 요구가 현대와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점에서 고전문학이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발휘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반성하며 다시 내일을 맞을 수 있는 살아 있는 문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② B 학생 (2.22순위)

i) 교과 성취도

이수단위 136 | 평균재적인원 195

이수 교과	과목 수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국어	6	1.00	1.00	1.00	1.00
영어	5	1.60	1.00	1.50	3.00
수학	5	1.80	2.50	1.50	1.00
사회	8	1.80	2.00	2.00	1.30
과학	3	1.80	2.20	1.30	-
예술 · 체육	4	A	A	A	A
생활 · 교양	6	P(1.20)	P(2.00)	P(1.00)	P

- 사회 이수과목 : 한국사, 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법과 정치, 사회·문화
- 과학 이수과목 : 과학, 지구과학 I, 생명과학 I
- 생활/교양 이수 과목 : 보건, 논술, 정보, 철학, 일본어 I, 한문 I

ii) 고교 공통정보 요약

- 부산 소재 일반고
- 과학영재반 프로그램 운영
- 매월 토요일 자율활동에서 토론 프로그램 운영
- 창의주제탐구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 교육과정과 연계한 심화 학술 동아리 지원 및 운영

iii) 교내 수상

인성교육발표대회(공동수상, 6인) 우수(2위)	2016.12.20
수학경시대회 최우수(1위)	2017.11.10
논술경시대회 장려(3위)	2017.11.29
창의주제탐구발표대회(공동수상, 2인) 장려(3위)	2018.07.18

iv) 자기소개서

1. 학업노력 및 학습경험

[학교생활기록부 발췌]

- 1학년 초 수학 과목에 대한 부담을 많이 지니고 시작했으나, 모듈별 토의 활동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며 교사의 돌발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이 거듭하며 '왜 이렇게 되는 거지?'라는 물음을 던지며 수학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사고하는 습관이 점점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며 수학 모듈활동 시간을 주로 행하는데 교사로서 안도감을 느끼기도 함
- 모듈을 구성한 후 고전시가 '서경별곡'을 발라드 장르로 변용하여 수업 중 급우들에게 노래를 들려주어 많은 호응을 자아냄
- 국어 학습에서 선생님의 설명에 그치지 않고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찾고, 관련 있는 작품이나 작가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꼼꼼함을 보임. 문법을 배울 때 누구보다 즐거워함
- 수학과 관련된 독서를 통해 수학 실력과 수학에 접근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였으며, 이는 수업시간 중 또 다른 해법을 요구하는 교사의 주문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과 수학적 지식을 갖추게 함. 이를 통해 한 학기 동안 학생의 수학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생규장전'을 다루는 시간에 작가 김시습의 생애와 '금오신화'에 수록된 전기소설의 특징을 조사하는 등 문학 감상과 관련된 자료 찾기를 스스로 즐겨하며 시 학습에서 '돈호법'과 '영탄법'의 차이, '객관적상관물'과 '감정이입'의 차이 등 세세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함. 차분하고 정돈된 학습태도로 조별 활동 수업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도맡음. '문학적 자기소개'에서 노래 가사를 개작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의 산문시로 비눗방울을 터트렸을 때 나오는 아름다운 색채처럼 다양한 친구들과 접촉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바람을 잘 표현함
- 학습에서 '왜?'라는 질문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생임. 질문을 할 때 본인이 분석한 문제 상황을 설명한 후 어떤 이유로 접근했고, 어떻게 정답을 도출했는가를 먼저 말함. 왜 오류가 생긴 것인지에 대해 처음에는 바로 설명해 주기도 하였으나 교류가 반복되면서 '이것과의 차이점이 뭘까?'라는 질문으로 답을 대신함. 교사의 힌트를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점을 찾는 과정을 즐기며 시간이 지날수록 논리적인 사고과정을 거쳐 수학 문제해결능력이 크게 신장되는 것을 확인함
- 문법의 전 분야를 스스로 탐구하고 정리해 보고자 '4주간의 국어여행(남영신)'을 찾아 읽음. 4주간의 여행일정처럼 펼쳐지는 문법학습이 쉽지는 않았지만 교과수업에 대한 내용정리는 물론 충실한 심화학습이 되어 매우 뜻깊었으며 중세국어나 어원에 대한 탐구도 해보고 싶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PPT로 제작하여 발표함
- 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풀이방법을 적용하여 해결하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에 대해 교사에게 적극적인 질문을 거듭하여, 본인이 잘못 해석하여 생긴 오류를 점검하며 자기주도 학습노트를 잘 활용하는 태도가 한결같음. 특히,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는 분석력이 돋보임. 모호한 표현을 수정하며 상황의 차이점을 더 명확히 자기화함을 지켜봄. 또한, 문제풀이의 과정을 수식, 그래프, 표 등의 수학적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도 뛰어남을 인정받고 수학 과목에서의 자신감을 회복함. 교과 내외의 여러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석에 오류를 최소화하려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음
- 영어 기행문 쓰기 활동에서 수학여행 첫째 날 굶은 날씨로 힘들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그에 대한 아쉬움을 잘 표현하여 좋은 평가를 받음. 영어 토론활동에서는 '사형제도는 적절한가?'를 주제로 선택하여 찬성의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침. 입론하기 전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여 주장의 논리력을 더 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성을 보여줌. 학기 초와 비교하여 여러 번에 걸친 영작활동을 통해 어휘력과 문장구사력에 있어 상당한 발전을 보여주었음

- 모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담당 교사에게 열심히 질문하며 노력하는 학생임. 조별 발표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장을 맡았으며, 조원이 협력하여 PPT를 매우 깔끔하게 만들어 발표한 것 외에 프린트를 별도 제작하여 이를 꾸준히 급우들과 공유함. 세 번의 발표 중 특히 ‘문화의 요소’ 단원의 발표에서는 발표의 준비성과 전달력이 뛰어나 급우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으며, 본 교사도 칭찬함
- 수업 중 교사가 던지는 질문에 앞장서서 발표 및 대답을 하며 수업에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조별 발표수업에서 조장을 맡아 조원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급우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PPT 외에 학습용 프린트를 추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여 실제 수업 중 급우들에게 나누어준 후 설명하기도 함. 발표 준비 과정에서 자료 조사와 수업 발표자를 담당하여 교과서, 학습지 외 여러 자료를 더 찾아보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임
- 4컷으로 한시 표현하기 활동에서 이옥봉의 ‘自述’을 선정하여 시에 대한 본인의 해석을 덧붙여 마치 시의 화자가 편지를 쓴 것처럼 표현한 방식이 인상적이었으며, 시적 상황과 정서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남. 한자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언어에 관심이 많으며 궁금한 점이 생기면 항상 교사에게 질문을 통해 해결하는 적극성을 보임

[자기소개서 발췌]

‘왜?’라는 이 말은 제 고등학교 생활의 전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1학년 때 수학 수업은 앞에 나가 문제를 풀고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선생님의 질문에 대처하기 위해 ‘선생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실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선생님이 왜 자주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가 궁금했고 제 스스로 ‘왜?’라는 물음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면서 ‘왜 여기서의 식은 성립되지 않고, 이 공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까?’ 등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너무나 수용적인 학습만을 해온 것은 아닌지 반성했습니다. 이는 학업 전반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국어 공부를 할 때 생긴 궁금증은 끊임없는 문법 공부에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품사적 논란이 발생한 ‘잘생기다’가 왜 동사로 취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답을 얻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사전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동사로만 쓰이는 ‘생기다’로 이를 설명해 보려고 했으나 ‘그녀는 예쁘게 생긴다.’와 같이 현재 시제 어미를 붙였을 때 의미가 어색해지는 동사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불완전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주로 알려진 방법 이외에 둘을 구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또, ‘비음의 유음화는 역행동화만 가능하다.’는 문장을 보고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자료를 찾으며 자음군단순화의 경우 순행동화도 가능한데, 이때 관련 있는 음운이 /ㄴ/, /ㄹ/이란 것을 파악하고 이 음운들이 다른 음운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수의적 현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등 다양한 문법 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답을 찾으며 국어에 대한 탐구 의지를 점점 더 확고히 했습니다. ‘왜?’라는 호기심은 저에게 지식을 심화하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었고, 앞으로 학문에 정진할 때도 지치지 않을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 의미있는 활동

1학년 때 <춘향이는 그래도 운이 좋았다>와 <달과 6펜스>를 읽으며 작품을 여러 관점으로 감상할 수 있고 때로는 전혀 다른 감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문학작품에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2학년 문학 시간에 작품에 대한 해설을 공부하면 ‘이렇게도 해석하고 감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계속 품었고 국어선생님들께 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냐며 질문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한 작품에 대한 해석에 몰두하면 오히려 시험에서는 오답을 낼 때가 많아졌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문학의 매력은 이를 다양하게 감상하는 독자의 시각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매력을 알면 알수록 시험 점수가 떨어지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문학’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고, 국어라는 과목의 전반적

특성을 탐구하고자 국어토론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문학작품에 대해 의견을 나눌 때 저는 작가와 작품의 해석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습니다. 부원들에게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문학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에 타당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했으며, 수업 시간 중 배우는 작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해석의 보편성을 인정받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적합한 근거를 갖춘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문학작품에 접근하는 진정한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어토론동아리에서의 활동은 또래교사에서 ‘소통’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국어 또래교사로 활동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국어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즐거움의 대상인 ‘국어’인데 친구들에게는 ‘굳이 이렇게까지 배워야 해?’라는 반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때부터 국어지식을 전달하는 일과 더불어 국어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는 전달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여러 활동을 통해 ‘소통’의 힘을 경험한 저는 ‘역으로 질문하기’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왜?’라는 질문의 중요성을 아는 저는 친구들도 이 질문을 통해 호기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당황했지만 계속된 질문에 익숙해진 친구들은 저와 문답을 이어갔고, 이를 통해서 저의 설명에 대한 친구의 이해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방향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진정한 상호협력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함께 선생님께 질문도 하면서 깊이 있는 학습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간을 통해 협력학습공동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3. 학교생활 사례

교내 또래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연령을 대상으로 ‘나눔’을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이 되어 학습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차근차근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봉사는 저를 무척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와는 달리 공부는 물론이고 저에게조차 관심을 가지지 않는 멘티를 마주했을 때, 저는 제대로 대처 한번 못한 채 좌절감만 느껴야 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내내 집중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등 다른 행동을 하는 멘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집중시켜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다보니 가르치기에만 집중한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가르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멘티와 소통하는 일이며, 이에 래포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는 멘티와의 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칭찬해주고 관심을 가지며 저를 ‘하기 싫은 것을 시키는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에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때로는 함께 놀기도 하고 계속 말을 걸고 또 경청했습니다. 그 결과 4번째 방문부터는 멘티가 저를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고 멘티와 함께 알아야 할 개념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도착하면 먼저 자리에 앉자 “오늘 뭐 배워?”라는 말로 반겨주는 멘티를 보며 느꼈던 희열은 단순히 멘토링이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소통의 기반이 되는 언어가 자신과 타인의 행동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언어에는 큰 힘이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언어이자 국어의 중요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국어를 탐구하겠다는 꿈을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4. 독서활동

수레바퀴 아래서(헤르만 헤세 저/김이섭 역)

중학교 때 <스프링 벅>과 함께 읽었던 <수레바퀴 아래서>는 제게 ‘타율’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들었고 고등학교 생이 된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에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저도 모르게 주인공 ‘한스’처럼 남들에게 이끌려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었고,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지?’라는 물음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행하고 때로는 탐구하며 깨달은 사실은 다시 독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얻은 결론은 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저를 제 ‘삶의 주체’로 만들어주는 중심이 바로 ‘국어’라는 것을 발견했고 이 ‘자율의지’는 한 그루의 어린나무를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학교생활에서도 큰 힘이 되었고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나갔던 순간들은 나아가 학문을 탐구하는 ‘빛나는 청춘’이 되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어의 온도(이기주 저)

‘말과 글에는 나름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 도서관에서 언어 분야 책을 찾아보다가 ‘제목’ 옆의 구절에 반해 읽게 된 책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과 대화를 통해 위로를 전한 이 책을 처음에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가벼운 에세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다시 한 번 더 읽게 되었을 때, 저는 책에 나온 구절들을 통해 언어가 담을 수 있는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소하지만 가볍지 않은 언어들에 모여 많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따뜻함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평소에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말 한마디, 글 한 글자의 소중함을 ‘소통’이라는 방식으로 주변에 전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작가가 사람에서 슬며시 받침을 바꾸면 ‘사랑’이 되고 ‘사람’에서 은밀하게 모임을 빼면 ‘삶’이 된다고 한 것처럼 저는 ‘국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언어를 알아가는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한국어가 사라진다면(최경봉 외 4인 저)

‘사피어-워프 가설을 이용한 한국 문화 습득’이라는 탐구를 진행하고 언어에 관심을 가지다보니 문득 왜 이런 탐구를 시작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국어가 좋아서, 더 알고 싶었던 흥미’라는 것이 전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한국어의 원초적인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고 싶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영어의 공용화로 인해 국어가 그 빛을 잃어가고 결국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버린 한국어의 상황을 읽으며 한국인이자 앞으로 ‘국어’를 배워나갈 사람으로서 한국어가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된다는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는 한국어에 대한 한국인의 애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문법에 거부감을 가진 주변 친구들부터 변화시키자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시행했던 ‘국어와 영어 문법 비교를 통한 효율적 학습 방안 모색’ 활동은 미래 ‘국어 탐구의 의지’와 함께 국어에 대한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해줄 것입니다.

③ C 학생 (1.92순위)

i) 교과 성취도

이수단위 134 | 평균재적인원 339

이수 교과	과목 수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국어	5	1.00	1.00	1.00	1.00
영어	5	1.00	1.00	1.00	1.00
수학	5	1.20	1.50	1.00	1.00
사회	6	1.50	1.00	1.70	1.30
과학	3	1.30	1.50	1.00	1.00
예술 · 체육	4	A	A	A	A
생활 · 교양	6	P(1.80)	P(2.00)	P(1.50)	P(2.00)

- 사회 이수과목 : 한국사, 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사회문화, 법과 정치
- 과학 이수과목 : 과학, 물리 I, 지구과학 I
- 생활/교양 이수과목 : 정보, 논술, 교육학, 진로와 직업, 기술·가정, 중국어 I

ii) 고교 공통정보 요약

- 대구 소재 일반고
- 강의식 수업을 탈피 학생 참여형 수업 확대
- 실질적인 교과 역량을 함양하는 수업 및 평가 방식 운영(과정 중심 수행평가 40%)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화학실험, 심화영어독해 등)

iii) 교내 수상

국어경시대회 은상(2위)	2016.07.06
독서경시대회 장려상(4위)	2016.11.07
시낭송UCC대회 은상(2위)	2016.09.13
토론대회(공동수상, 4인) 동상(3위)	2017.07.19
수학경시대회 금상(1위)	2018.07.03
정책제안발표대회(공동수상, 3인) 은상(2위)	2018.07.20

iv) 자기소개서

1. 학업노력 및 학습경험

[학교생활기록부 발췌]

- 수업 중 문학 갈래의 특징에 관한 발표에서 창의적인 면모를 보임. 서정 갈래에 특히 뛰어난 성취를 보이고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이 좋음. 예를 들어 시 <춘천은 가을도 봄이지(유안진)>에서 작가에 집중하여 독창적인 발표를 하였고, <제망매가(월명사)>는 <도산십이곡(이항)>과 비교하여 시의 내용을 해석하는 모습을 보임.
- 매 단원 마무리로 배운 내용을 조원들과 협의하여 마인드맵, 시, 연극, UCC, 노래 중 하나로 표현하도록 활동하는 프로젝트를 받아 조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 명제 단원의 내용 정리를 마인드맵으로 표현할 때 카카오톡 상황을 활용하여 흥미를 높였으며 특히 절대부등식을 설명할 때 자신감을 갖고 깔끔하게 요약 설명하며 증명을 직접 풀이하는 열정을 보였음.
- 발표수업 중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의 변천'에 대한 부분을 맡아 보충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한 후 PPT를 만들어 친구들 앞에서 발표함. 우주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 내용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한 후 수업 시간 중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 시 수업 시간에 실시한 '감성이 있는 시 수업 - 감상문 쓰기 활동'에서 친구들에게 추천할 만한 시 '수선화에 게(정호승)'를 가져와 시를 낭독하고 그에 대한 감상문을 써서 발표함. 특히 이 시에 나타난 외로움의 정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잘 나타내었으며, 시의 내용을 현대사회와 연관지어 감상하여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잘 드러냄. 국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교과서 수록본에 머무르지 않고 작품 전체를 찾아 완독하는 모습을 보임.
- 독서프로젝트 활동에서 <불편해도 괜찮아(김두식)>를 읽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매 시간 독서일지에 주요 내용과 느낀 점을 술하였음. 특히 서평쓰기에서는 '왜 한 번도 비판적이지 않았는가'라는 제목의 서평을 작성하여 차별의 역사와 인권의 박탈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였으며, 책을 읽고 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말이나 행동 하나도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 같고, 자신의 언동에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 같다.'는 요지의 내용을 제시함.
- 상대성이론 단원에서 특수상대성이론과 일반상대성이론에 흥미를 느껴 영화 '인터스텔라'를 감상하고 영화 속 이론의 개념을 설명하는 책을 추가로 찾아본 후 보고서를 작성함. 전자기파와 통신단원에서 전자기파의 특징과 그 이용 분야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각 전자기파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구분한 것이 인상적임.
- 자발적으로 심화독서토론 동아리를 결성하여 성실하게 활동에 임함.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토머스프리트먼)>를 동아리 토론 중심 도서로 추천함. 토론을 통해 개별 국가가 지닌 문화독창성을 바탕으로 보편적이고 융합적인 문화다양성을 가진 경제 강국이 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함.
- <Never Let Me Go(가즈오 이시구로)>를 읽고 인간이 어떤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신의 의견을 영어독후감으로 작성함. 미국의 사회와 문화주제 발표시간에 미국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오역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함. 'I offered a souldtion: kill(나는 해결책으로 그들의 절반을 죽였다), We're in the endgame now(이제 가망이 없어)'라고 번역되어 있는 점이 영화의 흐름 및 중요한 결말을 바꾸어 버릴 수도 있어 각각 상황에 맞는 올바른 번역을 제시함.
- '시계'는 사람이 보고 있거나 말거나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주체적인 사물이 바로 시계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함. 자신 역시도 시계와 같이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이야기함. 또한 시간은 항상 앞으로만 흘러가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시계도 자신도 이 순간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발표함.

-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아 <한국통사(박은식)>를 찾아 읽었으며, 대원군의 세도 정치 척결과 내정 개혁의 업적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실시하여 우리나라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에도 공감함. <미래를여는역사(한중일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를 읽고, 자문화 중심주의의 편협한 애국심에서 벗어나 인권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 서로 존중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사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였음.
- <데미안>, <싯다르타> 등의 소설로 이전에 만났었던 헤르만 헤세의 마지막 작품 <유리알유희>를 소개함. 헤르만 헤세 작품 특유의 동서양 사상, 신화적 구조와 다방면의 방대한 지식들을 따라가기 힘들어 읽는 내내 어려움을 느꼈지만 <잡문시대>의 지식인들이 돈과 명예, 권력을 위해 자기 지식을 왜곡하는 모습들은 기자들의 왜곡보도, 어용 지식인의 문제 등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시대와 국경을 떠나 모든 인간사회가 지니고 있는 난제임을 깨달았다고 발표함.

[자기소개서 발췌]

“그저 처분해 줘사요!”, “으응! 그리여잉? 그럼, 그냥 가쇼!” 문학 논술형 수행평가 시간에 채만식의 <태평천하>를 읽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고민 없이 개인의 안위만 추구하는 친일파 윤 영감 직원을 통해 문학은 시대와 사람들의 가치관, 생활상을 드러내는 ‘거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대화 의도와 발화 의미는 어떻게 다를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인력거꾼은 ‘처분’이라는 어휘를 사용, 샅을 후하게 쳐달라는 ‘요구’를 간접 제시했지만, 구두쇠인 윤영감은 샅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자의적으로 받아들여 갈등이 생겼습니다. 소설 속 대화상황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상황 맥락에 따른 발화 의도와 비분절 음운이 주는 어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만 명확한 의사표현과 의미전달이 가능하고, 대화 시에는 특히 상대에 대한 배려와 공감적 경청태도가 중요함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소재나 인물성격 분석에만 그친데 비해, 화법 중 ‘화용론’적 방법으로 작품 분석을 한 점이 기발했다는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법에 관한 관심은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 쓰이고 있는 언어표현을 찾고 원인을 분석하는 심화탐구활동인 ‘훈민정음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학교가) 나오세요.” 등 대상의 신체, 생각, 소유물에도 선어말어미 ‘-시’를 덧붙이는 등 특히 주체높임의 잘못된 사용이 빈번함을 분석하였습니다. 어휘 역시 잘못된 의미유추와 무관심으로 얼룩얼룩한 무늬나 점을 가리키는 ‘얼루기’를 ‘얼룩이’로, 밥을 ‘푸다’를 ‘퍼다’로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조사하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배움을 토대로 신문부 활동에서 기사 작성 시 철저한 검토와 교정을 거쳐 명확한 의미전달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경험으로 국어에 대한 흥미를 더욱 느낄 수 있었고,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국어공부에 매진하고 싶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의미있는 활동

제게는 선생님 이외에 책이라는 또 다른 인생의 스승이 있습니다. 말은 의미가 희석될 수도 잊힐 수도 있지만, 삶의 지혜와 경험을 기록한 글은 시간이 지나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글은 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시대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쓰기와 독서활동이 취미인 저는 교내 국어 및 독서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시낭송 UCC 제작 대회 등 어문학과 관련한 교내 대회에 참여하며 자연스레 제가 가진 역량을 조금 더 계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라는 시는 우리 모두의 슬픔을 위로해 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학교를 상징하는 꽃이기도 한 수선화가 진로와 교우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어서 이 시를 선정했습니다. 피곤함에 지쳐 책상에 엎드려 자거나 공부하는 친구들 모습을 배경음악과 함께 편집하였고, 영상 후반부에는 어머니가 학생을 안아주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격려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시낭송 영상을 유튜브에 탑재했고, 교내 방송에 소개되어 친구들에게 큰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주제선정, 촬영, 편집 과정에서 의견 조율과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배웠고, 시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윤동주, 정지용, 백석 시집 등을 읽고 시인의 시 세계 탐구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심화탐구 동아리를 통해 세종대왕께서 지니셨던 통솔력과 애민정책을 분석하여 21세기 한국형 복지정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과 소통의 지도력이 어떠한 국가적 어려움과 시련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했습니다. 제가 탐구한 보고서는 우리 지역의 고교연합 학술제와 교육청 주관 주제탐구 학술동아리 발표회에 학교 대표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탐구과정을 통해 시대를 앞서 복지정책을 실천한 우리 선조들의 문화적 우수성에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헌자료와 참고서적 조사 과정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로도 선정된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유산이 없었다면 500년 역사에 대한 사실적 고증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당쟁과 전란에도 목숨을 걸고 보존한 기록 문화의 중요성을 배웠으며, 우리 한민족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구체적 대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중시합니다. ‘재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통해 본교 학생을 위한 자체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학년 초에 구청별로 ‘교복 물려 입기’ 캠페인을 하지만, 연중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제도나 환경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구입하기에는 부담되는 교복과 체육복 등을 학생들의 신체 치수별로 서로 무료 교환하도록 했고, 교과서, 문제집, 기타 학습자료 등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교내 정책제안 대회에서 발표하며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필요로 하는 이의 관점에서 항상 준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3. 학교생활 사례

사회구성원으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성원들이 주는 보이지 않는 헌신의 결과이기에, 그 혜택을 받드시 사회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외 교과 멘토링과 고교 3년간 학급 학습 멘토링을 실천하면서, 제 자신의 지식과 공부에 대한 열정도 더 커질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3년간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인연은 1학년 때 만난 또래 장애인 친구입니다. 친구는 지적장애로 한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한글 학습을 돕는 방법을 고민하다 노래 부르기를 즐기는 친구를 보며, 동요를 함께 부르고 가사의 단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한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도 함께 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진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2학년 때 삼일절 기념 강제징용 지역 동포 돕기 자선 음악회를 기획, 개최했습니다. 홍보 팸플릿을 디자인하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사할린과 연해주 등으로 강제 이주 후 이국땅에서 나라 없는 서러움과 그리움을 토로하는 말씀 속에서, 국민에게 ‘나라’라는 울타리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도 노인 요양시설을 꾸준히 방문하면서 말벗도 되어드리고, ‘팝아트’를 활용하여 어르신의 얼굴을 그린 후 어버이날 선물로 드렸습니다. 평생 제대로 된 영정사진 하나 없었다는 할머니의 말씀과 눈물에서 울컥함을 느꼈고, 저의 노력으로 적은 시간이나마 그분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어 저에게도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4. 독서활동

언어의 온도(이기주 저)

책은 제가 지닌 학구적 호기심을 심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탐구의 수단이 되기도 했지만, 제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인간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라는 확고한 가치관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틈’의 의미는 앞만 보며 뛰어가고 무언가를 채우기에만 급급한 현대인의 삶을 반성하고, ‘쉬어감’과 ‘내려놓음’을 통해 작은 것에 대한 관심과 관찰, 사물과 사람에 대한 애정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힘들고 지친 이들을 위해 우리가 망설임 없이 따스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가가 말하는 ‘언어의 온도’는 ‘삶의 온도’가 되어서 고된 삶의 여정 속에서 지친 모든 이에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언어는 연민과 공감의 힘이 되어 서로를 다시 일으키고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하인리히 뵐 저 / 김연수 역)

잘못된 언론은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귀를 멀게 할 수 있습니다. ‘240번 버스기사’ 이야기가 뉴스에 오르내릴 때, 언론 분야 진로에 관심이 있는 제게 신문부 동아리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읽은 책입니다. 책을 읽고 가장 먼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언론’의 정의를 찾아보았더니, ‘매체를 통해 사실을 알리고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여론형성’이라는 말이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240번 버스기사 사건’ 오보와 같이, 이 책은 왜곡된 기사로 인해 평범한 사람이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희생자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사실감 있게 묘사합니다. 언론이 사실보도라는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고 흥미와 자극 위주의 보도를 한다면, 언론은 더 무서운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잘못된 방향으로 대중을 유도해 간다면 디스토피아를 만드는 흥기가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언론인의 자질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유토피아의 꿈(최인훈 저)

최인훈 작가의 ‘광장’을 읽은 후, 작가가 지향하는 ‘평화와 화해’의 꿈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자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념대립, 빈부격차 심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합과 공존의 ‘유토피아’를 꿈꾸어온 작가의 삶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식인은 자신이 지닌 가장 큰 무기인 ‘말’을 통해 국민에게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여 권력을 포함한 사회적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 개개인의 진리와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양심과 봉사를 통해 시대적 문제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는 ‘선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참된 지식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진리를 옹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의 영속적 독립과 사회정의의 실현, 사회적 부의 증진 등이 가능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